

## 민선 5기 1년

### 쌍 소통과 참여 화두로

# 예산도 정책도 '주민에 한걸음 더'

민선 5기가 다음달 1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 지 꼭 20년째다. 성년의 나이에 들어선 5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정책과 사업을 선보이며 진정한 '풀뿌리 정치' 정착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광주일보는 ▲소통과 참여 화두로 ▲2할 자치 재정난 심화 ▲되풀이된 구태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민선 5기 1년을 점검해본다.

## 참여예산제·개방형 공모 앞다퉀 도입 공청회·설명회 등 밀착 현장행정 강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10·27 보궐선거를 통해 광주에서는 광주시장과 서구청장·남구청장·광산구청장이, 전남에서는 여수시와 담양군 등 8개의 시·군의 단체장이 새롭게 바뀌었다. 새 단체장만이 아니라 재선 및 3선에 성공한 단체장들에 이르러 민선 1~2기 준비단계, 3·4기 성장단계에서 외면받아왔던 비정규직, 택시운전자 등 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를 시작으로 광주·전남의 각 지자체가 단체장과 시민과 만남의 자리를 정례화하고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위원회나 심의회를 구성해 정책 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이해와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또 과거 준비·성장단계에서 외면받아왔던 비정규직, 택시운전자 등 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요성을 각인시킨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매주 금요일 오후 시장이 해당 실과 직원과 함께 민원인을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이 소통방식은 광주·전남뿐 아니라 수도권과 영남 일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됐다.

또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 광주U대회 선수촌 부지 결정, 상무소각장 주변 민원, 새 야구장 건립 논쟁 등 지역분열의 대상이 됐던 현안들은 모두 주민공청회 및 시민과의 대화 개최, 주민·공무원 TF팀 구성 후 논의 등을 거쳐 비교적 순탄하게 풀리기도 했다. 김종식 서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민병배 광산구청장도 민원인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홈페이지에 별도의 콘텐츠를 두는 등 구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민선 5기 전남 기초자치단체들도 취임 당시 '소통' 행보를 공언하고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밀착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22개 시군 대부분이 주민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가 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농림정책을 확대하고 그 후라도 주민설명회를 갖는 분위기도 정착됐다.

특히 강운태 광주시장의 '시민과의 대화'는 소통과 참여라는 패러다임의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형태와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자체는 물론 시·도교육청에 이르기까지

지난 2003년 광주시 북구가 처음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형태와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자체는 물론 시·도교육청에 이르기까지

특히 강운태 광주시장의 '시민과의 대화'는 소통과 참여라는 패러다임의



수문 연 승촌보 광주·전남에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린 22일 광주시 남구 승촌보(洪·沔)의 가동보(可動洩·160m) 4개가 모두 열리면서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폭 512m에 이르는 강을 가로지르는 승촌보는 고정보(固定洩)와 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가동보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처음으로 가동보 수문 4개가 모두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귀막은 대통령

### 광주·전남 반발 불구 '5·18 北 소행' 주장 김현욱 평통 부의장 임명 강행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광주·전남 지역민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이하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김현욱 전 국회의원의 임명을 강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김 수석 부의장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고 한반도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치켜세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두환 군사정권하의 민주정의당(민정당) 국회의원 출신인 김 전 의원은

80년 광주 학살은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반대 활동을 펼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의 발기인이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삼성비리 폭로에 참여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반미 좌익단체로 규정된 '카톨릭 뉴라이프' 상임의장과 자유민주주의시민연합 공동의장을 지낸 극우 보수 세력의 대표적 인물이다.

광주·전남지역민들은 지역 반발에

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임명한 데 대해 "광주 정신을 폄하하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통일과 남북화해'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독선과 독단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5·18 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해 뿐 아니라 역사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된 사람으로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로써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양수현기자 tuim@kwangju.co.kr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만장일치 연임 확정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로 연임을 확정지었다. 이날 총회에서 벨스 메소네 안보리의 의장이 반 총장의 연임 추천 결의안을 제안한 뒤 조지프 데이스 유엔총회 의장이 반 총장 재선 안건을 공식 상정하자 192개 전 회원국 대표들이 박수로 통과시켰다. 경쟁자도 없었고, 표결도 없었다.

그야말로 만장일치였다. 사상 첫 한국인 유엔 수장이 '동양적 리더십'을 인정받아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로 5년 연임이 확정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1946년 유엔 창설 후 8번째 사무총장인 반 총장의 첫 5년 임기는 올해 12월 말로 끝나며, 2기 반기문 체제는 내년 1월 1일 출범해 2016년 말에 종료된다. 반 총장은 연임이 확정된 뒤 회원

국 대표들의 기립박수 속에 회의장에 입장했고, 유엔 헌장에 손을 얹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했다. 반 총장은 수락연설에서 "유엔 회원국과 다양한 국제 파트너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다리 건설자'(bridge builder) 역할을 위해 나의 모든 에너지와 결의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연임이 확정된 뒤 유엔 헌장 원본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알림

## 베스트 애널리스트 조병문이 본 글로벌 금융이슈는?



### 광주일보 경제 아카데미 여수 특강

조병문 전무.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맡고 있다. 대신증권, 교보증권,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등을 거치면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 3분야에서 수년동안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는 금융전문가이다. KB투자증권 재직중이던 2008년에는 주요 법인영업고객으로부터 최상위 등급을 받을 정도로 리서치센터 운영에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광주일보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경제아카데미 제3탄. 이번엔 여수에서 열린다. 수강료는 무료.

- ▲ 주제 = 글로벌 금융이슈 점검 및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
- ▲ 일시 = 6월 30일(목) 오후 4시
- ▲ 장소 = 여수시청 1층 3층 대회의실

\* 참석자들에게 '계획하는 삶은 아름답다' 단행본을 무료로 드립니다.

光州日報社

6월 24일 내일 오픈입니다

## 세계 최고의 베니스 비엔날레의 시선을 사로잡다!

고흐가 작품을 터치하듯  
괴테가 베르테르의 슬픔을 집필하듯  
비발디 교향곡의 선율을 타고 흐르듯  
차별적인 외관, 창조적인 디자인  
자연과 하나되는 감성적 단지설계  
보는 순간 차라리 하나의 예술품.  
문화예술도시 베니스조차도 부러워하는  
새로운 주거명작을 직접 만나십시오.

광주 남구 문화 예술 특구  
봉선·주월 **EG the 1**

59㎡(구25형), 84㎡ A|B|C(구32형), 107㎡(구41형)

문의전화 062) 368-8833

이주라 인·EG건설·남흥건설

로즈 장 파페라 콘서트 **The Best**

세계적인 디바 로즈 장 파페라가 선사하는 파페라의 향연!  
이 아름다운 시간으로 귀하를 초대합니다

일시: 2011년 6월 24일 오후 8시  
장소: 봉선·주월 **EG the 1** 모델하우스  
(초청장을 소지하신분께 한에 입장 가능합니다)